



미 증시, 긴축 발작 충격 소화하며 반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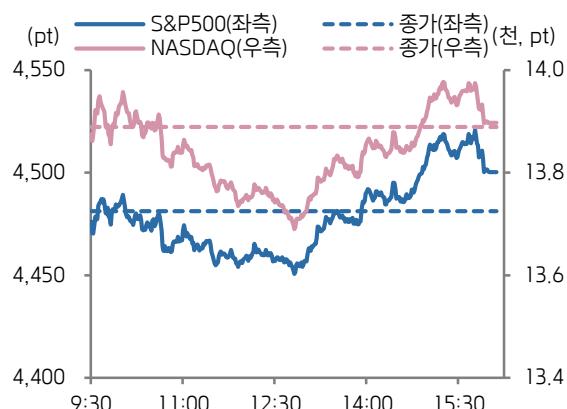
미국 증시 리뷰

7 일 (목) 미국 증시는 전일 의사록 공개 등 통화정책 부담 관련 매물을 소화하며 소폭 반등. 장 초반 주간 신규 실업수당청구건수 지표 개선(16.6 만명 vs 예상 20 만명, 전주 17.1 만명)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긴축 부담에 0.1% 하락 출발한 S&P500은 오전 불러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의 매파적인 발언들로 낙폭이 0.7%까지 확대. 하지만 오후장 대형 기술주들에 대한 저가 매수세, 헬스케어, 필수소비재 등 업종들의 강세 흐름, 에반스와 보스틱의 덜 매파적인 발언들 등에 힘입어 오후 상승 전환에 성공하며 마감(다우 +0.25%, S&P500 +0.43%, 나스닥 +0.06%, 러셀 2000 -0.35%).

불러드는 “아직 연준이 커브에 뒤쳐져 있다”고 언급하며 연말까지 기준금리를 3.5%까지 인상하는 것을 주장하는 등 매파적인 발언을 함. 하지만 오후 에반스와 보스틱의 발언은 덜 매파적인 스탠스를 보이면서 증시에 긍정적이었음. 에반스는 “시기상(timely) 적절한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보스틱은 통화정책 정상화를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 이날 미국채 10 년물 금리는 5bp 상승(2.66%), 2 년물 금리는 2bp 하락(2.47%)하며 장단기 금리차이는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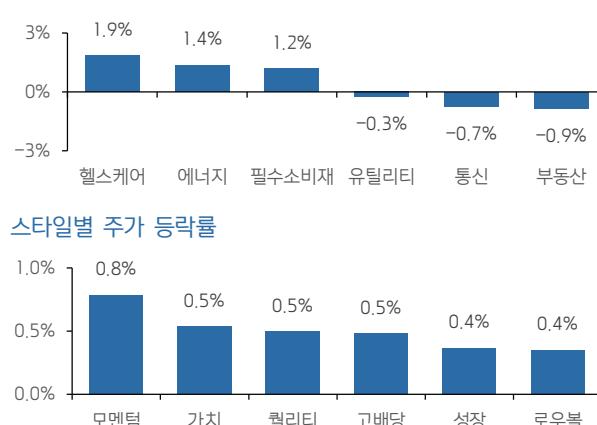
업종별로 헬스케어(+1.9%), 에너지(+1.4%), 필수소비재(+1.2%) 등이 상승, 부동산(-0.9%), 통신(-0.7%), 유ти리티(-0.3%) 등이 하락 하는 등 차별화 장세 지속.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는 0.1% 상승, 다우 운송 지수는 0.3% 상승. 종목별로 테슬라(+1.1%), 애플(+0.2%) 등은 저가 매수세 유입으로 소폭 반등한 반면 아마존(-0.6%), 엔비디아(-0.8%) 등은 금리 부담에 약세 흐름을 이어감. HP(+14.8%)는 버크셔 해서웨이(+0.5%)가 1.21 억 주의 지분 공개(약 42 억 달러) 소식에 급등. 전일 장 마감 후 실적을 발표한 코스트코(+4.0%)는 동일 매장 매출은 전년대비 12.2% 증가 기록하는 등 어닝 서프라이즈에 힘입어 급등. 이외 월마트(+1.0%), 타겟(+5.7%) 등 기타 유통 업체들도 동반 강세 흐름을 보임. 리바이스(-0.7%)는 예상을 상회하는 실적 발표에도 불구하고 공급망 차질 이슈로 약 6,000만 달러 매출 피해가 있었다고 언급하며 장중 5%까지 하락했지만 결국 약보합에서 마감.

S&P500 & NASDAQ 일중 차트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주요 지수					
주식시장		외환시장			
지수	가격	변화	지수	가격	변화
S&P500	4,500.21	+0.43%	USD/KRW	1,219.18	+0.08%
NASDAQ	13,897.30	+0.06%	달러 지수	99.77	+0.17%
다우	34,583.57	+0.25%	EUR/USD	1.09	+0.01%
VIX	21.55	-2.49%	USD/CNH	6.36	+0%
러셀 2000	2,009.80	-0.35%	USD/JPY	123.98	+0.02%
필라. 반도체	3,197.44	+0.11%	채권시장		
다우 운송	14,603.99	+0.28%	국고채 3년	2.890	-3bp
유럽, ETFs			국고채 10년	3.107	+0.5bp
Eurostoxx50	3,802.01	-0.59%	미국 국채 2년	2.460	-1.2bp
MSCI 전세계 지수	702.39	-0.11%	미국 국채 10년	2.658	+6bp
MSCI DM 지수	3,012.24	-1.22%	원자재 시장		
MSCI EM 지수	1,142.50	-1.23%	WTI	96.03	-0.21%
MSCI 한국 ETF	69.55	-0.63%	금	1937.8	+0.76%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오전 6 시 30 분 기준

 check

한국 증시 주요 체크 사항

**한국 ETF 및
야간선물 동향**

MSCI 한국 지수 ETF 는 0.63% 하락, MSCI 신흥국 ETF 는 0.8% 하락. 유렉스 야간선물은 0.11% 상승. NDF 달러/원 환율 1 개월물은 1223.2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3 원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

주요 체크 사항

1. 외국인과 기관을 중심으로한 낙폭과대 인식성 저점 매수세 유입 여부
2. 전거래일 호실적을 발표했음에도 주가가 부진했던 삼성전자 등 주요기업들의 주가 변화
3. 타겟(+5.7%), 코스트코(+4.0%) 등 미 유통업체 강세가 국내 관련 업종 투심에 미치는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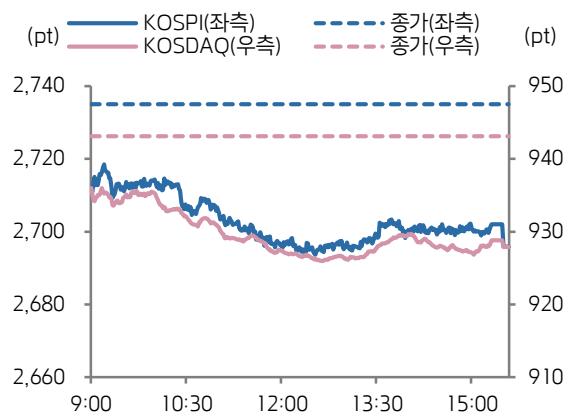
증시 코멘트 및 대응 전략

금주 들어 시장은 연준이 유발한 긴축발작 사태로 성장주 중심의 단기적인 조정을 맞은 상황. 그러나 3 월 FOMC 종료 이후 금리인상 강도(특정회의 50bp 금리인상)를 확인했으며, 3 월 FOMC 의사록 공개 이후 양적 긴축 강도('17~'19 년에 비해 규모 확대)를 확인하면서 연준발 불확실성이나 관련 악재는 시장에 상당부분 노출된 것으로 판단. 7 일 매파성향의 제임스블라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는 현재 연말까지 기준금리를 3.5%대(현재 기준금리 상단 0.50%)까지 인상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도, 연준의 공격적인 긴축을 시장은 반영하고 있는 상태라고 이야기한 것도 유사한 맥락. 향후 남은 FOMC 회의 때마다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것은 불가피하겠지만, 연준이 만들어내는 긴축 발작의 시장 충격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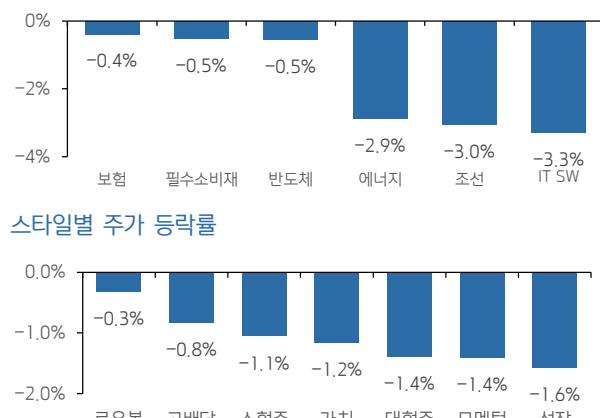
우크라이나 사태의 경우,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지속적인 무기 지원을 요청하고 있으며, 러시아도 용병 및 시리아 요원을 고용하면서 병력을 확충하는 등 교전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 다만, 양국이 고위급 회담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현재는 합의문 초안 작성 논의 단계로 넘어갔으며, 주변 동유럽 국가들도 중재를 지속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 3 월 중순 이후 유가, 곡물, 비철금속 등 전쟁 이슈로 폭등했던 원자재 가격도 평년 수준으로 정상화되고 있는 만큼, 우크라이나 사태가 상수화로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은 유효하다고 판단.

이상의 요인들을 감안 시, 금일 국내 증시도 연준의 긴축 발작 충격을 소화하면서 낙폭과대주를 중심으로 반등에 나설 것으로 전망. 전일 삼성전자, LG 전자, LG 에너지솔루션 등 주요 기업들이 1 분기 어닝서프라이즈를 기록했음에도 주가가 부진했지만, 이는 개별 기업 고유의 잠재 리스크보다는 매크로 불확실성에서 기인했던 것으로 판단. 다음주부터 미국을 중심으로 주요국들은 본격적인 실적시즌에 진입하는 만큼, 시장 참여자들도 매크로 이슈보다는 실적 이슈에 더 민감하게 반응해 나갈 것으로 예상. 더 나아가, 2 월~3 월 중 한때 254 조원대까지 낮아졌던 코스피 영업이익 전망치(12 개월 선행 기준)가 7 일 현재 262 조원대로 상향되고 있다는 점도 눈에 띄는 부분. 삼성전자 등 상기 언급한 기업들의 호실적으로 인해 전반적인 국내 증시의 이익 전망 추가 상향 가능성도 높아진 만큼, 4 월 중 국내 증시도 주가 복원력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

KOSPI & KOSDAQ 일중 차트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Compliance Notice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원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시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자리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징계 됩니다.